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김유일	면담자	정지선		
면담장소	유성톱연마	면담지원	양지원		
면담 일시	2022년 9월 29일	회차	3	시간	1시간11분20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567				
구술 개요	<p>목공예마을에 사장님 외 수공구 하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셨음. 제일시장 밑으로 큰 저수지가 있었고, 용정초등학교 쪽이 전부 배나무 밭이었음.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본어를 잘해 직장에서 일본 바이어 담당이었음. 주인선 철길 이야기. 예전에는 톱을 연마하고, 성형하는 작업을 전부 했었음. 옛날엔 지방에서 올라와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물량이 줄었음. 좋은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을 많이 보내심.</p>				
주요 색인어	커피, 대장장이, 수공구, 와룡공장, 배나무밭, 직장, 일본어, 대중회, 송의동, 248번지, 주인선, 연마, 성형, 목공예 마을, 카톡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커피 이야기, 대장장이 이야기, 수공구 사장님 이야기				00:00:01~ 00:06:04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즐겨 먹는 커피는 부천 역사에 가서 사오심. -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었지만, 1년 전에 업장을 접으심. - 예전에는 수공구 하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셨음. - 수공구는 옛날 톱. ‘야스리’ 라는 줄로 마모된 걸 갈아주는 것.					
2. 와룡공장, 제일시장, 과거 배나무밭 이야기				00:06:05~ 00:07:45	
- 제일시장 밑으로 큰 저수지가 있었음. - 제물포에서 올라가는 쪽(용정초등학교 쪽)으로 배나무 밭이었음.					
3. 직장생활 이야기				00:07:46~ 00:11:24	
- 아버님이 일본 광산 엔지니어였어서, 일본 말을 습득했음. - 직장에서 일본 바이어가 오면 사장님이 담당했음. - 74년도 나이가 어렸지만 과장을 달았었음.					
4. 대중회 이야기 1				00:11:25~ 00:15:43	
- 집안 아우되는 분께서 족보를 찾아주셨음. - 큰 아들이 가게를 보고, 전화로 족보 관련된 일을 했음. - 대중회에서 촌수가 높음. 나이가 적어도 향렬이 높음.					
5. 송의동 248번지 국민주택, 주인선 이야기				00:15:45~ 00:20:40	
- 송의동 247번지에 있는 국민주택의 구조 설명. - 국민주택에 두 가구씩 살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인역에서 주안역까지 짐을 옮기는 주인선 이야기. - 옛날에 철길이 다 묻혔음. 주인공원 철길이 독쟁이까지 왔다 갔었음. - 고향 충북 수산에서 충주로 장병들이 집결해서 짐 싣는 화차를 타고 갔었음. 		
<p>6. 가족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이야기. - 아내가 2012년부터 병중에 있는 상황. - 아들이 여기서 일을 몇 년하고 마스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싶지 않아함. 	<p>00:20:45~ 00:23:56</p>	
<p>7. 연마 작업, 성형 작업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안으로 보면 마모된 게 그대로 보임. 안 보이게 되면 잘 갈린 것임. - 넓은 톱은 문틀을 짤 때 홈 파는걸로 사용함. - 모방 기계(성형 기계)로 간단한 성형을 했었음. - 쇠의 종류, 규격을 알려주면 만들어주는 고정 거래처가 있음. - 이 곳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톱날을 성형하는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다 했음. - 쇠가 자연적으로 녹이 슬기 때문에 샌딩(모래는 금강석)을 해서 깨끗하게 만듦. - 콤프레샤는 샌딩할 때, 청소할 때 사용하심. 	<p>00:23:57~ 00:34:47</p>	
<p>8. 송의목공예마을 사장님들과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구를 쓰면 연마를 하게 되면 몇 달씩 쓰기 때문에 자주 오는 것은 아님. - 이 가게가 먼저 생기고(40년이 넘었음), 목공예마을이 생김. - 옛날엔 지방(부산, 전라도, 제주도)에서도 올라와서 많이 헤드렸는데, 지금은 물량이 줄었음. 	<p>00:34:48~ 00:38:30</p>	
<p>9. 인터뷰 확인동의서1, 한시대회, 대중회 이야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확인동의서를 받는 과정. - 이종사촌이 성균관 시관으로, 한시대회를 주최하는 곳에 대중회에서 7명이 갔었음. 37년 만에 봤는데, 이름을 듣고 알아보았음. - 한시대회에서 이분의 관정으로 끝나고, 그때 책을 한 권씩 보내줌. - 집안의 자랑스러운 위인들의 이야기. 	<p>00:38:31~ 00:51:18</p>	
<p>10. 카톡 친구들 이야기, 종친회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 먼저 다 가고 나니 아쉬운 마음. - 직장을 같이 다니다 그만 둔 분이 몇십 년 됐지만, 지금도 카톡을 보내심. 	<p>00:51:19~ 00:59:41</p>	



<p>- 좋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귀를 꾸준히 보내심.</p>		
<p>11. 인터뷰 확인동의서 2</p>		
<p>-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들어가 조상들의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음. - 지방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과정 설명.</p>	<p>00:59:42~ 01:11:20</p>	